

《삶을 배우는 작은 학교》

삶의 균형 찾기, 인생 항해에 필요한 요건

글_송보경 기자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듯이 우리 마음도 저절로 성숙해진다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된다면 성숙해진 만큼 감당해야 할 외적인 요소들을 소화시키지 못해 괴로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짝이는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침을 얻길 원하고 새로운 의미를 배우려고 하는가 보다. 공인된 사회 정규 교육을 졸업한 후에도 인생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책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젤름 그뤼 신부의 책 《삶을 배우는 작은 학교》은 이렇게 스스로 터득해야 할 인생 지혜들을 조금 더 명확히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를 위해서 배우지 말고, 삶을 위해 배워라”는 말과 상통하게 그뤼 신부 역시 책을 통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라고 조언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조건이란 내면에 있는 대립적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균형의 키워드는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치, 시간, 태도, 책임, 일하는 즐거움, 존재, 상처와 치유, 평화, 자기에. 각 분야별 조언 중 독자가 건져 올려야 할 깨달음의 양이 많다. 우선적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작은 실천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삶이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 그가 말하는 ‘내 삶을 이끌어줄 나만의 별’을 찾기 위해선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깊이 접촉해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누구는 명량함을, 누구는 현명함 그리고 또 다른 누구는 내면에 희망을 내재하고 있다. 이때 우리 속에 잠재된 슬픔과 아픔, 미움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아닐 것이기에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인생 본연의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가라는 말이다.

또 하나 마음에 새겨도 좋을 말은 “산다는 것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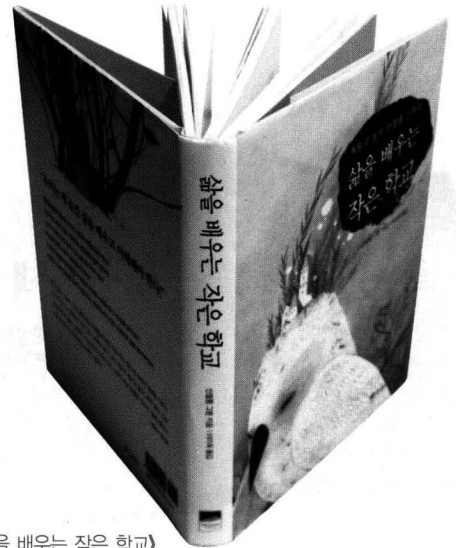
하루하루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이들과의 만남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훈련 코스라는 사실이다.

그뤼 신부가 말하는 균형이란 생활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사로운 발견에서 시작된다. 시간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리듬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의 바깥에 내가 존재해야 내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혜로운 반응이 나온다는 것과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다.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정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수도원을 그 습득의 장으로, 성경을 그 도구로 사용한다고 전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우리네 삶에서 습득의 장이라는 것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삶을 배우는 작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수칙은 ‘더불어 사는 삶’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터득해야 할 ‘내면의 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내 안의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 거울을 매일 깨끗이 닦아 내면을 관찰하는 것. 남들 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당신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는 좋습니다.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송보경**



《삶을 배우는 작은 학교》
안젤름 그뤼 신부 지음 | 이미옥 옮김 | 256쪽 | 값 11,000원